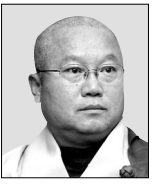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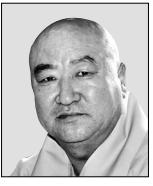


일 주 문



만해예술제 법진 (재)선학원 이사장 스님은 6월 18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홀극장에서 만해예술제를 개최한다.



법화종 창종 60주년 법회 도성 한국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스님은 6월 14일 오전 11시 동영안정사에서 '창종 6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佛우형문화재실무위원장에 주경 스님은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제25차 의례위원회 회의에서 불교무형문화재실무위원장에 선임됐다.



설법전 개금불사 정안식 덕일 서울 길상사 주지 스님은 6월 5일 경내 설법전에서 석가모니불 개금불사 정안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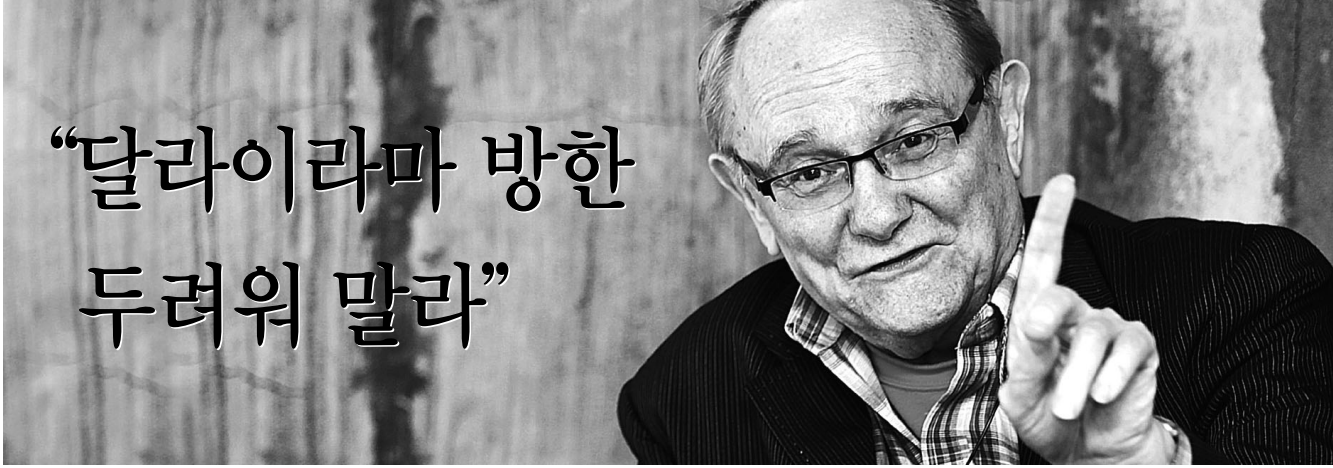
올해의 이화인상 강영화 부산 옥련선원 합창단 지휘자는 5월 31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올해의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화족】 현대불교신문 노덕현 기자가 6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라빌(구 웨딩의전당)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신부 문상선양과 화족을 받는다.



의왕 청계사 제7회 연꽃문화제

사단법인 동련 서울경기지구(회장 성행, 의왕 청계사 주지)는 5월 29일 제7회 연꽃문화제를 청계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화계사·수국사·청계사·용화사 등 서울 및 수도권 사찰 어린이와 청소년 500여 명이 참석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로 마음속의 불심을 표현했다.



“달라이라마 방한 두려워 말라”

Interview

제프리 흙킨스 美버지니아대 명예교수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 활동 격려

“정치적 사안 아냐, 中 관여 어리석어”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달라이라마는 정치가가 아닌 심오한 학자이자 철학자, 사상가이다. 중국정부가 자신들의 요청을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소란 외에는 달라이라마가 중국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국내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지식인에게서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프리 흙킨스 美버지니아대 명예교수(사진)는 6월 1일 교계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며 한국인과 불자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흙킨스 교수는 “달라이라마가 방문하는 나라에 중국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며 “달라이라마가 방문한 나라에서 이야기한 것도 자비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달라이라마 방미 당시 미국 내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처음에는 달라이라마를 미국정부 초대대통령인 조지워싱턴의 환생이라고 보는 것처럼 어렸고 정치적 문제도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중국정부의 반대도 있었다. 이에 달라이라마의 티베트 탈출을 도왔던 미국정부 역시 방문을 제한하고 있었다”면서 “달라이라마 방미 성사를 위해 몇몇 정부 인사들은 사임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지는 등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또 “카터정부의 실세인 버진스키는 달라이라마가 미국에 올 수 있다고 하면서도 6개월 후라고 했다. 즉 중국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개월 동안 우리는 방미 준비를 했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흙킨스 교수는 불교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 활동에도 진심어린 조언을 남겼다.

그는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은 불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세계적인 종교지도자가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방미 추진 경험에 따르면 달라이라마 방한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호적인 이들의 리스트를 확보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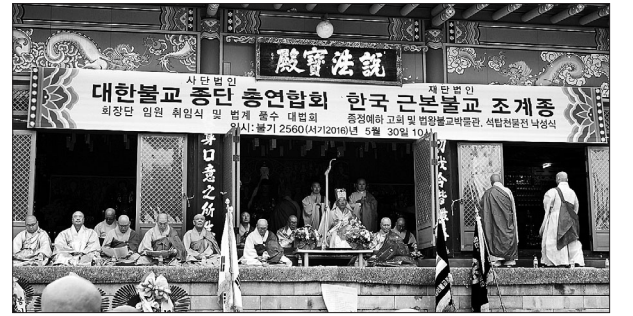
이날 흙킨스 교수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달라이라마 통역사로 있었던 인연담도 소개했다. 그는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16권의 책을 펴냈다.

그는 “1972년 인도 다람살라에 실질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 갔다. 많은 티베트 학자들이 교학체계를 분류해 도와주었다. 그 중 달라이라마는 한 종파나 교학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교학체계를 기반으로 사고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나를 감복시켰다”고 인연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종단총연합회 신임회장단 임명

회장 회암 스님, 부회장 법장·정일 스님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회장 회암)는 5월 30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양 불탑사에서 신임 회장단을 임명하고, 불탑사 천불전·박물관 낙성식, 종정 의륜 스님 고회 및 출판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의륜 스님, 총연합회장 회암 스님, 총재 대원 스님, 수석 부회장 법장·정일 스님, 운영위원장 원각 스님, 실무의장 법천 스님, 사무총장 산수 스님, 의문도회회장 해명 스님, 동해사 주지 무일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법천 스님 사회로 시작됐다. 법장 스님의 상속문 낭독과 세계불교조계종 헌성 스님 대회사에 이어 신임회장 회암 스님(본조계종 종정)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문화 증진을 위한 연합회 역할이 막중하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난제들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 총재 대원 스님, 법상종 前 종정 담은 스님의 격려사와 자비종 해광 스님·근본해동종 정일 스님의 축사, 사무총장 산수(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답례사, 동해사 주지 무일 스님의 발원문을 끝으로 법회가 마무리됐다.

윤호섭 기자

삼론종, 호국영령천도 수륙대재

5월 28일, 자비쌀 800kg 기부도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지민)은 5월 28일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 순직한 유무정의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종단 수륙대재를 서천 금강하구둑서 봉행했다.

종단 수륙대재에는 종정 해승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지민 스님, 승정원 해공·함운·지운·해불 스님, 중앙종회의장 지경 스님, 사정원장 명산 스님, 포교원장 명재 스님, 교육원장 남륜 스님, 수선원장 지화 스님, 문화원장 지향 스님, 내빈과 불자 등 1천여 명이 동참했다.

해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동참한 불자들은 이웃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했다. 긍정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생활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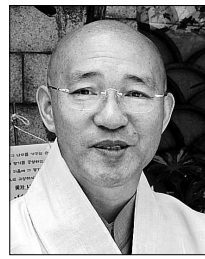
지민 스님은 봉행사에서 “삼론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을 위해 천도재를 마련했으나, 불자들에게서는 호국영령 천도와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수륙재 봉행 후 삼론종은 서천군에 자비의 쌀 800kg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문화행사로 현충재 지속발전”

14년째 현충재 이어온 능화 스님

호국영령들의 넋을 달래는 현충재를 14년간 이어오는 이가 있다. 바로 법패와 작법무보존회장 능화 스님(사진)이다. 스님은 올해도 6월 6일 인천 수봉산 현충탑 광장에서 현충재를 열었다. 올해 현충재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바로 기업유료전시가 함께 진행됐기 때문이다.



스님은 “그동안 공연사진을 유료로 제작했다. 우체국으로부터 소인 받은 것으로 매년 개최해 온 현충재와 함께 보존회가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유료로 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앞으로 학생 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도 꿈꾸고 있다. 60종의 엽서를 활용한 전시와 현재 스님이 불사 중인 법패 박물관을 활용한 교양 교육이 그것이다. 법패박물관은 스님의 주석처인 구양사 2층에 위치한다. 박물관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어린이를 위한 글짓기대회도 준비 중이다.

스님은 “현충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지역 중등학교와 연계해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문화 포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 기업, 미안마서 횡포 심각”

미안마 노동운동가 투레인 아웅

“미안마인들에게 무슬림 신자인 인도인이 건립한 공장에서 일하겠나. 불자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겠나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인도’라고 답합니다. 이유는 미안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횡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5월 25일 불교계 국제구호 NGO 하얀코끼리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안마 노동운동가 투레인 아웅(사진) 씨는 6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안마 진출 한국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 불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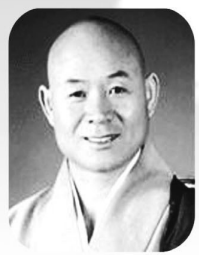
“오전 8시에 과업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2~3시까지 근무수당 없이 일을 시키는 기업도 있으며, 노조를 만들자 지도부 15명을 모두 해고한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입니다. 국제노동기준 체제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형제 나라 미안마에 한국불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투레인 씨는 한국 내 노동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불교 단체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Table with 4 columns: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ows include 한의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재경대학.

2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